

社說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밝았다. 대한제국의 외교관을 박탈한 일본과 맺은 '을사조약'에 의한 한일의정서가 1905년에 체결된지 120년이다. 세계는 강렬한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때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뜬금없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미국 국익을 우선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외교, 경제적 압박도 거셀 전망이다. 글로벌 보호 무역의 흐름은 더욱 굳어질 것이다.

균형과 중립에 기반한 실용적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강국이다. 선진 민주국가다.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국민적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엄중한 시기다.

정치권부터 즉각적인 협치에 나서야 한다. 대화와 소통, 민주주의 질서를 복원해야 한다. 낡고 진부한 진영 대결을 종식해야 한다. 국민들까지 평가받는 분열과 대립을 끝내고 '통합'으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은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과 법률,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수반으로서 역할에 헌신해야 할 것이다. 우선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모두 임명해 '9인 체제'를 완결, 향후 절차적 시비를 없애야 한다. 내란 특검법도 공극에 수용해야 한다.

연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로 탑승자 179명이 안타깝게 희생당했다. 상상도 못할 참사 앞에 국민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국가의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이 마음 편하게 일상 생활을 이어가는 더 평화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다.

중대성·심각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당위를 갖는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서 내수가 살아나더라도 회복 속도는 완만하겠다고 예상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는 붕괴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불법 계엄 사태로 지방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자체 살림살이는 곤궁해지고 민생은 무너지고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는 위기의 옷을 입고 온다'고 했다. 가능하기 어려운 국난을 마주하고 있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한다.

1980년 5월 광주의 햇살이 더 활활 타올라야

국가 위기 속 빛난 호남의 지혜와 힘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검찰의 수사 또한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의 불확실성 고조가 원화 약세를 조래하며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수출은 둔화하고 내수는 침체되고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다. 리스크가 타격하는 상황을 조기에 봉합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 스스로도 성장률 전망에 대해 "하방의 어려움이 있다"며 1%대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한국은행은 광주·전남의 경우 주력 업종인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부문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와 물가 부담은 줄어들겠으나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어

한다. 매섭게 갈바람이 부는 흑한의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응원봉과 선결제로 '어둠'을 밝히고 있다. 탄핵이든, 수사든 최대한 빨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할 때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 새해에도 이에 버금가는 국민적 감격을 안기는 낭보가 들리길 기대한다. 5·18 광주 희생의 통째로 성취한 민주주의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미래를 열 것이다.

광장히 고동스런 한해였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다. 다사다난했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 대학교수들은 지난해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도량발호(跳梁跋扈)'를 꼽았다. '요리 뛰고 저리 날진' 최악의 사례는 비상계엄이었다.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데 권력이 선용돼야 하겠다. 뺄뺄이 권력이라면 위임한 주권자가 즉시 회수하는 게 맞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정치 혁신을 촉구한다. 아무도 '노(NO)'라고 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제약적 권력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모두가 공멸하고 만다. 경제를 망치는데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큰 위협이다.

본보를 비롯해 온라인에 대세인 지금, 긴급하게 중대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제작된 신문 호외가 불티났던 적이 흔치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헤드라인이 걸린 보도에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우리가 이겼으며 환호성을 질렀다. 중장년들은 오랜만의 일이라며 반가워했고, 젊은 층은 생전 처음이라며 신기해했다. 발행일이 아닌 토요일날 뿌려진 호외는 '탄핵 고조(기념품)', '역사 굿즈'로 삼아 개인 소장 자료로서 인기를 끌었다.

아이러니하게 시민 기본권인 인권과 자유를 훼손하는 불법부당, 불의에 저항하며 역사는 발전해왔다. 또 언론의 역할이 분명하게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누구도 납득 못할 계엄의 밤

에도 그랬고, 반면에 대한민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 등 미증유의 사건에서도 그랬다. 신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장돼야 하는 지점이다.

2024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2025년을 맞는다.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됐다. 세계가 다시 한번 주목한 광주다. 계엄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5월 정신이다.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차 역량을 모아야 한다.

국가에도기간 속의 새해다. 1980년 5월을 떠올리게 한 12:3비상계엄의 충격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전 세계를 뒤흔든 여객기 참변이 발생했다. 광주·전남 지자체·민간단체는 해남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어느 때와 다르게 조용하고 엄숙하다.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로 전하고 있다.

본보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햇살'을 높이 들겠다. 수많은 생명, 소중한 가족을 잃는 비극은 다신 없어야 한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열 것을 다짐한다. 독자로부터 관심과 신뢰를 받도록 감시와 견제의 선두에 설 것이다. 초유의 침착한 난관을 마주하고 있다. 정문지필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자 한다.

울곧이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지역 발전과 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호남인의 대변자,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시론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발전자리재단 대표이사

무안에 다녀왔다. 남평의 회갑 기념으로 첫 해외여행을 간 직원과 어머니가 비행기에 탔다며 흐느끼는 정 팀장이 걱정됐다. 마치 막까지 아니길 바랐다. 본인의 책임 인 듯이 우는 딸에게 "엄마는 참 훌륭한 분이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빼고는 다른 어떤 말도 하기 힘들었다. 어머니를 보낸 정 팀장에겐 뭐라 말해 줘야 하나 그냥 서로를 보면서 울기만 했다. 광주의 모든 사람들이 상주고 모든 곳이 장례식장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유가족들의 깊은 슬픔을 함께 나눈다. 2024년은 참 잔인하고 비정하다. 경제발전자리재단은 국가 애도 기간동안 조기를 달기로 했다. 조기를 달면서 차갑게 식은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3가지 조기를 생각한다.

첫째, 조기 집행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예산이 빠르게 현장까지 전달 될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깔아야 한다. 모든 것에는 순서와 시기가 있다. 지금은 방향 못지 않게 속도가 중요하다. 특히 골목상권 소상공인 예산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2025년 예산을 상반기중에 70% 조기 집행해야 한다. 대통령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3가지 조기

권한대행은 예산 조기 집행 현실을 만들어서 체크하고 독려해야 한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하게 행동해야 한다.

둘째, 조기 추경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 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2016년 탄핵시 한국경제는 상승기였다. 이번 탄핵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여건 어려움이 커진 상황과 맞물려서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추경을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자본시장 선진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처방했다. 소비진작을 위해서 편성하러다 여야간 이견으로 하지 못한 지역화폐 예산을 빠르게 추경편성해서 우리 경제의 실탄줄인 골목 상권 소비를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 광주는 1월 한달동안 상생카드를 10%까지 할인해 주고 공공배달업의 쿠폰발행을 집중해서 꺼져가는 소비의 불씨를 살리고자 한다. 이런 지방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조기 추경 편성이 절실하다.

셋째, 조기 파면이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현재에서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 파면이 경제고 일자리다. 조기 파면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과 예측가능성을 키워야 한다. 오죽했으면 미국 경제뉴스 Business Insider에서 TS Lombard 라는 영국 투자 리서치 및 경제 예측 컨설팅 회사의 분석을 기사화했는데, 주요내용은 "한국 대통령이

탄핵되면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념과 정당의 이해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루 하루 견뎌내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에 지지는 정당,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나 신념의 차이는 먹고사는 문제 앞에선 무의미하다. 대통령 탄핵은 민생경제를 지키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정체를 바로잡기 위한 일이다.

조기파면으로 불확정성을 제거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공급적 관점이 아닌 수요적 관점으로 전환해 공공의 쓸모를 찾아야 한다. 중국의 예극 소비,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순환경제 등의 본질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공공이 수요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가 이끄는 공급, 소비자 중심의 경제 등 경제 권력이 소비자에게 넘어온 것이다. 자산지소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지역적으로 지능적으로 지구적으로 소비자가 필요하다. 소비 심리가 급속하게 식고 있다. 소비는 경제의 심장고 같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디지털 경제는 수요를 중심으로 한 경제다. 경제 권력이 소비자에게 넘어가고 있다. 경제 권력 교체는 소상공인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공공은 이 과정에서 수요혁신의 촉진자가 돼야 한다.

백범 김구 선생이 강조한 리더십은 윗자리를 차지하려는 갑주싸움 쟁두(爭頭)가 아니라 힘든 일은 먼저 하려드는 쟁족(爭足)이다. 조기를 걸면서 조기 집행, 조기 추경, 조기 파면 3조기를 위한 쟁족의 각오를 다진다.

'마수걸이 운동' 희망의 첫걸음을 땀시다

불경기의 여파도 있었지만 비상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럽다 보니 심리적인 여유가 사라진 일반 시민들도 지갑을 닫고 있다. 기부와 나눔 행렬도 꺾여 얼어붙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심리적 추위를 녹일 따뜻한이다. '마수걸이 운동'은 우리 주변의 상점을 찾아가 하루의 첫 손님이 되어주는 캠페인이다.

상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며 장사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작은 소비로도 지역 상권에 기여를 했다는 성취감을 가져다 준다. 지역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 역시 부가적인 목적이다.

핵심은 '우리 이웃의 단골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머슴고 방문한 가게에서 첫 거래를 한 뒤 마음에 드는 식당, 카페 등을 점차 늘려 나가는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의 얼어붙은 정국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도 없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서로의 손을 맞잡아주는 정도의 작은 따뜻함이라도 주변에 퍼트려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수걸이 운동'이 희망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윤영민·前 화순군의회 8대 부의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작년 연평균기온 14.5도...사상 처음 14도 돌파 또 신기록

2024년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사상 처음 14도를 돌파해 '압도적으로 뜨거웠던 해'로 남았다. 1월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을 보면 작년 평균기온은 14.5도로 재작년(13.7도)에 이어 2년 연속 '1973년 이후 연평균 기온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1973년은 기상관측망이 대폭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해다. 한 해 평균기온이 14도를 넘기는 작년이 처음이다.

작년 평균기온은 평년(1991-2020년 평균) 연평균 기온(12.5±0.2도)을 2도나 웃돌았다. 일최저기온과 일최고기온 연평균 값도 지난해가 역대 1위다. 평균 최저기온은 9.9도로 10도에 육박했고 평균 최고기온은 19.7도로 20도에 가까웠다. 최저기온과 최고기온도 평균기온과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연이어 신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여름 기온이 40도를 기록(8월4일 경기 여주시 점동면)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최악의 폭염이 나타났다. 열두 달 중 평균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낮은 달은 단 한 달도 없었다.

특히 늦더위가 지루하게 이어진 9월은 평균기온(24.7도)이 평년기온(20.5도)보다 4.2도나 높았다. 그나마 예년 기온을 지킨 달은 5월인데 이때도 평균기온(17.7도)이 평년기온(17.3도)을 0.4도 웃돌았다. 지난해 '덥지 않은 달'이 없었기에 기록이 끊긴 셈이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C3S)에 따르면 작년 1~11월 평균 지구 표면 기온이 1991-2020년 평균보다 0.72도 높았다. 이는 아직 산업화 이래 가장 뜨거웠던 해인 재작년 같은 기간 온도보다 0.14도 높은 것이다. 연구소는 작년 지구 기온이 사상 처음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높아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1.5도 상승'은 인류가 설정한 일종의 마지노선인데 이것이 뚫린 셈이다.

독자투고



'마수걸이'는 단어의 울림만으로도 두근거림을 준다.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지만 스포츠를 즐겨 보는 사람이라면 '마수걸이 골', '마수걸이 홈런' 등의 단어로 많이 접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기다림 끝에 첫 결실을 맺었다는 성취감은 물론 앞으로 많은 성과를 쌓으리라는 기대감도 담겨있다. 상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날그날 마수걸이를 언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그날 매출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심리 위축과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개점 시간을 함참 넘기고도 아직 마수걸이도 못했다' 서글픈 목소리가 자주 들려오고 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동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사항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규토국월 15,000원 1부 800원